

Japanese

제목 《번역야화(翻譯野話)》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시바타 모토유키
 출판사 문예춘추



하루키, 번역가로서의 그를 만나는 시간

한은미 | 번역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일본 작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다. 왜 '일본인' 인 그의 작품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읽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일본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실제로 하루키는 일본문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미 문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영미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와 일본의 저명한 번역가인 시바타 모토유키(柴田元幸)가 함께 쓴 번역에 대한 책이다. 하루키의 문학이 미국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가 번역가라는 사실을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지만 그가 번역에 대해서 쓴 책으로 이것이 처음이다.

하루키는 그가 소설을 쓰면서도 번역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본업이 소설가, 그것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소위 '잘 팔리는 소설가' 인 그가 굳이 번역에 집착하고 연연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키 자신도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씌어진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통쾌하게 밝히고 있다.

《번역야화》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번역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번역의 역사나 기법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은 책이 아니다.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해 펼쳐지는 번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말 그대로 '야화'다. 원래 역사도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가 더 재미있는 법. 그래서 물론 재미있게 읽힌다. 그렇다고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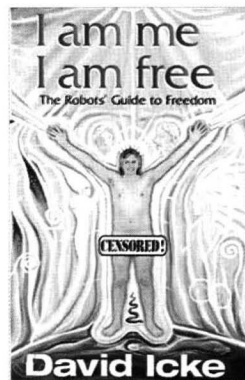
책의 구성도 독특하다. 도쿄(東京)대학 문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공저자 시바타 모토유키는 자신이 주최한 '번역 위크숍'에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키를 참석시킨다. 그 현장에서 하루키와 학생들의 번역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사실은 질문과 응답식)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생생한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한 편은 번역가를 지망하는 번역학교 학생과 벌이는 번역 포럼, 그리고 상급편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편은 두 저자가 자신들이 번역한 원고를 가지고 젊은 현역 번역가 6명과 함께 토론하는 내용, 즉 번역 실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내용이다.

나머지 부분도 매우 획기적인 기획이다. 시바타가 주로 번역을 맡은 폴 오스터 Paul Auster의 단편과 하루키가 독점 번역한 레이몬드 카버 Raymond Carver의 작품을 두 사람이 각각 번역, 수록하고 있다. 이른바 '경역(競譯)'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이 책을 번역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영어→일본어→한국어로 번역되는 중역(重譯)의 묘미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도쿄대학 조교수로 영어연구의 정통 코스를 밟아온 시바타와 전문적인 영어공부를 한 적이 없는 소설가 하루키의 길은 매우 다르다. 그렇다고 시바타가 논리적이며 하루키의 번역이 감각적이지만은 않다. 하루키는 시바타에게 번역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시바타 또한 소설가인 하루키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열정적인 노력과 멋진 파트너십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한은미**

English

제목 《I AM ME, I AM FREE -The Robots' Guide to Freedom》
저자 David Icke
출판사 Bridge of Love



자유, 그 감춰진 파라다이스

이지현 | 번역가

멀쩡하게 생긴 한 남자가 옷을 다 벗은 채, 만세를 부르는 모습으로 표지 위에서 웃고 있다. “뭐야이거? 이 남자 뭘 믿고 이리 당당한 거지?” 그다음, 자연스럽게 제목으로 눈이 간다. ‘나는 나, 나는 자유...?’ 다른 책에서 보지 못했던 파격과 직설이다. 난 이 책이 뭔가 범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직감한다.

저자의 약력은 흥미를 더해줬다. 영국 주요방송의 앵커와 BBC 기자, 그리고 녹색당 총대변인을 거쳤고, 현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강연과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미 퍼낸 책과 영상자료만도 십여 개를 헤아렸다. 이쯤 되면 독자들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까 싶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겠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혹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 이런 질문은, ‘먹고 사는 데’ 아등바등하는 현대인들에게 뜬 구름 잡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또 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는 억울하지 않은가? 한 번쯤이라도 ‘꼭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누구도 선볼리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간혀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들의 정신을 옥죄고 있는 종교, 사상, 각종 주의(ism)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왔는지 간파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길들여져

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신적인 감옥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깨닫게 한다. 먼 곳에서 예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당신은 타인들의 ‘이상하다’라는 시선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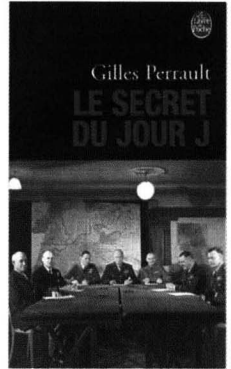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고, 여러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저자는 그것이 허구임을 역설한다. 모든 거대 산업과 매스 미디어, 정치권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고, 그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들이 교육과 종교, 사상체계들과 마스크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한 두려움과 한계로 가득 찬 관념들로 인해, 진정한 인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혼란과 전쟁으로 뒤범벅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과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담한 분량의 이 책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과 이 세상,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만약 사상과 종교가 당신이 세상을 보는 선글라스였다면, 이 책은 당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두려움과 죄책감, 걱정들이 당신의 사지를 엮어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어항 속 물고기의 삶은 아닌가? **출판**

French

제목 디데이의 비밀 Secret du Jour J
지은이 질 페로 Gilles Perrault
출판사 르리브르 드 포슈 Le Livre de Poche



디데이! 노르망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조정훈 | 번역가

프랑스에서 6월 6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44년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나치 독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며,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 지 올해로 정확히 60년이다. 60주년을 맞아 올해 프랑스의 서점가는 '주르 지 Jour J(불어로 디데이라는 뜻)'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질 페로의 《디데이의 비밀 *Le Secret du Jour J*》이다.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외양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군 수뇌부 사이의 치열한 막후 두뇌싸움과 각국 정보요원들의 첩보전 내막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1944년 당시 독일은 대서양 연안에 대규모 요새를 건설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연합군으로서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대규모 작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정부부는 이미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언제 어디냐만 밝혀내면 나치 독일은 상륙을 저지하고 전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었다.

연합군에게 남은 일은 적이 알지 못하는 날짜와 지점을 골라 전격적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양측 정보국 사이 치열한 정보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치열한 첩보전은 결국 연합군 승리로 끝나고 만다. 상륙작전이 감행된 6월 6일 새벽까지도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북쪽의 파 드 칼레 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연합군 측에서 이곳이 최종 상륙지점이라는 거짓 정보를 끊임없이 흘렸기 때문이다. 운 또한 연합군 쪽이었다. 새벽 4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히틀러는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오후가 되어서야 추가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연합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독일의 전쟁영웅 롬멜도 아내의 생일을 맞아 전선을 비운 상태였다.

이 책은 노르망디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대서사시의 숨겨진 이면을 뒤쫓으며 작가는 한 편의 추리소설과 같은 재미를 선사한다.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명한 프랑스 작가인 질 페로의 약력 때문이다. 그는 1956년 공수부대에 지원, 알제리전쟁에 참여한 뒤 민족주의와 레지스탕스 활동을 다룬 소설을 쓰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한때 극우 민족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지만 이후 변호사가 된 뒤 지금은 좌파 저널리스트로 변신했다.

1970년대 사형제도 폐지 문제를 다룬 책 《빨간 스웨터 *Le pull-over Rouge*》로 유명해진 그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사와 다큐멘터리 저술활동을 편다. 1990년대에는 모로코 왕 하산2세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 《우리 친구, 국왕 *Notre Ami le roi*》을 출간해 두 나라 관계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그는 모로코의 감옥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지금 그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 프롱 나시오날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한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에 저항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바스크 독립과 코르시카 독립을 지원하는 등 저술과 행동을 오가며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Turkish

제목 《이stanbul-추억들 그리고 도시》
작가 오르한 파묵
출판사 YNY



오르한 파묵의 추억과 이stanbul의 변천사

이난아 | 번역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현존 터키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 북리뷰>는 파묵을 일컬어 “동양에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고 극찬했으며, 파묵의 소설들은 이미 전 세계 3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국내에는 《새로운 인생》《하얀 성》《내 이름은 빨강 I, II》이 번역 출간되어 있다.

그의 최신작은 소설이 아닌 《이stanbul-추억들 그리고 도시》라는 이름의 자서전적인 에세이다. 그는 1994년에 출간된 《다른 색들》이라는 수필집에서, 도시 이stanbul과 관련된 작품을 쓸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파묵은 세계적으로 ‘터키 작가’ 라기보다는 ‘이stanbul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stanbul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발표한 7편의 장편소설 중 《눈》(2002)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배경이 이stanbul이라는 것만 보아도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현재도 이stanbul 중심가에 살고 있으며, 여름 집필실 또한 이stanbul에 속해 있는 셈이다.

서명書名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stanbul-추억들 그리고 도시》에서 그는 이stanbul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인사를 도시의 변천사와 함께 담담하게 풀어어나가고 있다. 무려 350쪽에 달하는 꽤나 묵직한 작품이다. 하지만 그 묵직한 부피 속에는 파묵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과 장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현재를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행복하게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겪었던 정서적인 불안감, 첫사랑, 가족, 슬픔, 행복이 이stanbul이라는 도시의 변천사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이stanbul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를 비밀스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작가가 유년기를 추억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슬픔’이다. 이stanbul 불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에게는 슬프게 다가왔던 것이다. 과거 오스만제국의 수도였던 이stanbul은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처럼 세계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광스런 모습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모습이 슬펐고,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하는 도시가 슬펐던 것이다. 도시에 솟아 있는 웅대한 사원들과 거대한 역사적인 건물, 목조 별장들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기에 슬펐던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의 50여 년 간의 세월은, 이stanbul이 세상과 멀어져, 변방도시로 남아 버린 흑백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작품엔 터키 유명 사진작가들이 찍은 이stanbul의 흑백 사진과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파묵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갖가지 사진들이 200점 가량 실려 있다. 파묵이 직접 그린 이stanbul 그림, 흑백사진 속의 이stanbul 변천사, 거리, 건물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눈요깃감이다. 이제 그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이stanbul을 꿈꾸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이 살고 있는 이stanbul. 그리하면 이stanbul이 사상, 문화, 예술, 다양성 면에서 더 발전된 도시가 될 거라는 이유에서이다.

이stanbul 작가 오르한 파묵의 과거, 인생관, 예술관, 사랑, 가정사, 개인사 등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이 작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텍스트다. 파묵의 아름다운 문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흑백의 이stanbul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묵이 들려주는 고백을 미소지으며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